"여수 엑스포·영암 F1 대회 유치기원"

조계종 전남4대교구본사, 신년하례법회에 2천여불자 참석

전남지역 5개 본사 신년기원법회가 1월 8일 전남도청 김대중홀에서 봉행됐다.

전남지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광주를 떠나 지역불자 2000여명이 만나기는 처음이다.

대흥사, 송광사, 백양사, 화엄사 등 전남지역 4개 본사가 1월 8일 무안에 자리한 전남도청 김대중홀에서 '미래의 희망! 전남 건설을 위한 신년기원법회'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을 비롯해 몽산(대흥사), 영조(송광사), 종삼(화엄사) 스님 등 4대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지각 스님 등 각 사암 스님, 박준영 전남지사, 김종철 전남도의장 등 지역기관장, 각 신행단체장, 불자가 참석했다.

도립국악단의 민속공연에 이은 법회에서 4교구본사주지회의 회장 몽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자로서 제역할을 다할 때 지역도 함께 발전한다"며 "사부대중이 하나되어 새로운 전남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자"고 말했다.

이어 박준영 도지사도 새해인사에서 "불교와 전남도민은 역사적 고비마다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다"며 "불자들이 앞장서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지사는 "2010년 영암F1 월드챔피언십 코리아대회와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성공을 위해 불교계가 함께 나서줄 것"을 기원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경전을 봉독하며 "새해에도 전남도와 불자들의 기원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축원했다.

법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도청 식당에서 오찬을 나누며 새해인사를 나눴다.

이준엽 기자

부처님 되신 날…자비실천의 날

광주불교사암련, 성도재일 법회서 나눔행사 펼쳐

광주사암련은 1월 23일 3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성도재일을 맞아 나눔행사를 열었다.

빛고을 광주지역 사암과 불자들이 '부처님 되신 날'을 맞아 대대적인 자비행을 펼쳤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각)는 1월 23일 KT 정보센터 대강당에서 성도재일 기념법회를 갖고 장학금과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이날 광주불교 사암연 산하 12개 사암은 36명의 학생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또한 산하 단체와 사암에서 후원한 쌀 200여포를 5개 구청, 교도소, 복지단체에 전달했다.

17대 회장 취임식을 겸한 이날 법회에 앞서 신임회장 지각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곧 부처님 마음이다"며 "부처님 되신 뜻을 놓치지 않는 사암연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광태 광주 시장도 인사말에서 "오늘은 부처님이 인간의 생로병사를 떨쳐버리고 중생 곁으로 다가온 성도재일이다"며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불자들의 동참을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초청법사로 법단에 오른 자광 스님(김용사 회주)은 법어에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참뜻을 놓치지 않는 불자가 되어 열심히 정진하자"고 설했다.

한편 사단법인 출범을 기념한 이날 법회에는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을 비롯, 지역 각 사암 스님과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장과 각 구청장 등 지역 기관장, 불자, 시민 1500여명이 동참했다.

이준엽 기자

"힘 모아 종단발전 이룹시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당부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운산)은 1월 22일 태고총림 선암사 대웅전에서 '2007년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혜초 스님 하례를 겸한 이날 법회에는 사정원장 월운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부원장, 종단 주요간부 및 지방종무원장,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종정 혜초 스님은 신년인사에서 "오계 가운데 불망어(不妄語)가 있다"고 상기시키며 "총무원장을 비롯한 삼원장은 시무식에서 밝힌 신년계획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한 태고종도들을 향해 "지난해에는 선암사사태로 종단의 위상이 추락했다"고 지적하고 "총무원과 태고총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며 종도화합을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송광사 '성보 바로알기' 주제로 템플스테이 준비

사찰에 소장된 성보문화재를 통해 '불교 바로보기'가 시도된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는 2월 10~11일, 24~25일 두차례에 걸쳐 '송광사 소장 성보물 바로알기 산사체험'을 개최한다.

이번 '성보물 산사체험'은 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의 지도로 송광사에 남아있는 유물과 박물관 소장물을 중심으로 16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본다.

주지 영조 스님은 "송광사는 전각, 유물, 스님이 많다고 하여 삼다사찰로 알려져 있다"며 "성보문화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옛 선사들의 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 이번 산사체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61) 755-0107~9 이준엽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청소년 도보투어 실시

평창 월정사 문수청소년회(총재 정념·월정사 주지)는 강릉장애인복지관과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을 위한 장애·비장애 청소년 도보투어'를 실시한다.

도보투어는 청소년 20명이 2007년 2월 6~9일 평창군청에서 강릉시청까지 약 100km 거리를 걷는 것으로 진행된다. (033)335-1318,9 남동우 기자

생활 속 불교문화

화순 자치샘

사람이 모여 사는 부락의 근본은 우물이다.

무등산 남쪽 자락에 자리한 화순읍의 중심도 물이 나는 곳이다. 화순 군청과 남산 사이에 자리한 자치샘이 그 곳이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읍내 주민치고 자치샘 물을 마시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른 새벽이면 집집마다 아낙들이 떠온 정화수였고 이 물로 밥을 했다. 아이들이 깰 무렵부터는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야했다. 낮과 밤에는 샘가에 있는 당산나무 아래에 삼삼오오 모여 세상사 무거운 짐을 내려놓곤 했다. 그래서 화순 5일장도 자치샘 인근 공터에서 열렸다.

화순군청과 남산사이에 자리한 자치샘.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한 자치샘은 철분과 염분이 없어 화순의 명물인 두부와 기정떡을 낳게 했다. 자치샘물로 옷을 빨면 유난히 깨끗하고, 술을 빚으면 맛이 일품이었다.

화순의 생명수 자치샘은 물맛만큼이나 이름 또한 유명하다.

자치샘물을 먹고 자란 춘곡(春谷) 강동원(姜東元. 광주 남도한약방 원장) 선생은 "화순에는 열 개의 샘이 있는데 그중에 으뜸이 자치샘으로 진각국사의 자취가 남아있어 '자취샘'으로 불렸으나 후대에 와전돼 '자치샘'이라 불린다"고 소개한다.

강 원장이 말하는 화순십정은 한천(寒泉), 성내천(城內泉), 동천(洞泉), 매화천, 덕촌천, 광덕천, 죽림천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동네 샘 두 곳이다.

자치샘에 담겨있는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 慧諶.1178~1234)의 자취는 이러하다.

고려 명종시절, 화순의 말단 향리 배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 16살된 배씨의 어린 딸이 새벽마다 샘에서 정화수를 떠다가 아버지의 석방을 기원했다.

그해 겨울, 샘물에 떠있는 물외를 먹고 아이를 낳았다. 처녀가 나은 아이여서 마을밖에 두었는데 학이 날아와 날개를 펴고 보살폈다. 주민들이 범상치 않은 일이라 하여 관가에 알렸고, 아이의 엄마인 배씨 딸이 현감에게 불려갔다. 배씨의 딸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현감은 배씨를 풀어주었다.

물외가 떠있던 샘이 오늘의 자치샘이고, 학이 살린 아이가 훗날 보조국사 지눌에 이어 송광사 2대주지를 지낸 진각국사이다. 갓난아이를 학들이 보호한 곳은 학서도(鶴棲島)로 그곳에는 학서정이 세워졌고, 학서도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진각국사 모습을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벽라리 민불'이 있다.

또한 화순 남산에는 최근에 이러한 내력이 담긴 진각국사 유적비가 세워졌다. 배씨 처녀의 정성에 따라 훗날 화순민들은 자치샘에서 길어온 정화수로 가정의 편안과 안녕을 기원했다. 화순민의 식수원 역할을 상수도에 넘겨준 뒤에도 주민들은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자치샘에서 정화수를 받아와 기도하고 음식을 장만했다.

그러나 근래들어 급속한 도시화에 밀려 자치샘도 겨우 흔적만 유지하고 있다. 샘가에 비스듬히 누운 당산나무와 물이 흐르던 도랑, 빨래터가 사라진 지 오래고, 지난해에는 커다란 도로마저 생겼다.

자치샘 사거리에서 자전거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창섭(69) 씨는 "예전의 자치샘을 다시 살려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모두 진각국사가 탄생한 생명의 원천 자치샘에서 떠온 정화수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준엽 기자

진각국사 탄생 '생명의 원천'

도시화에 밀려 자취만, 복원해 정신 살려야